

미국의 부흥과 회복 위한 다민족 연합기도회 열려

이 땅을 고쳐 주소서... 민족은 달라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뜨겁게 기도해



다민족기도회가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란 주제로 열렸다.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다민족들이 연합해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 지난 2011년 11월 11일 로즈볼과 2014년 11월 11일 베라이즌아외극장에서 열렸던 다민족 기도회가 올해는 한인교회 주도로 지난달 29일(주일)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약 3,500여 명(주최측 집계)이 참석했으며 절대 다수가 한인들이었으나 중국인 등 출신 국가가 다양한 동양인들, 백인, 흑인, 라티노들이 함께 'Heal Our Land(이 땅을 고쳐 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기도했다.

오후 4시 30분 시작된 기도회는 한기홍 목사의 개회 메시지로 시작해 회개, 교회와 가정, 학교와 문화, 국가 지도자, 사회 정의와 변화, 부흥과 선교라는 소주제 아래 각 주제를 3명의 한인 목사와 1-2명의 다민족 지도자가 인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기도회 중

간에 JAMA 설립자 김춘근 박사가 짧게 메시지를 전했다며 강순영 목사가 기도 인도자들을 소개했다. KCCC와 더락교회, 파이어크루세인, 등이 찬양을 인도했다. 모든 행사는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8시 30분을 넘겨 끝났다. 이 기도회 중 국가 지도자를 위

한 기도시간에는 선출직 정치인인 영 김 주 하원의원, 최석호 열바인 시장, 스티브 황보 라팔마 시장의원, 스콧 보이츠 레이포레스트 시장, 유수연 ABC교육위원이 직접 참석해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미성대학교 D.Min 개설 감사예배 및 후원의 밤 개최”

열방을 향한 세계선교 위해 최선 다하는 신학교 될 것

미성대학교(총장 류종길 박사) D.Min 개설 감사예배 및 제 11회 후원의 밤 행사가 지난 11월 29일(주일) 오후 4시부터 이 대학 채플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비전나눔, 3부 이 대학 상담학과 디렉터 김혜란 교수에 대한 명예신학박사 학위 수여식, 그리고 4부는 간단한 저녁식사와 함께 교제 시간으로 각각 나누어 진행됐다.

이상혁 목사(재무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예배는 마하나임(뉴송교회) 찬양, 안중기 목사(이사, 임마누엘헬로우십교회) 기도, 조성호 목

사(총무이사, 비이셀리아교회) 성경봉독, 전국여전도연합회(지회 도서관장 원덕영 목사) 합창, 장석진 목사(미주성결교회 경경총회장) 설교, 이기홍 목사(성광교회)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석진 목사는 '당신의 옥함을 깨뜨려라'(마가14:3-9)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옥함은 가장 귀하고 비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사모하고 존경하는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신앙고백과도 같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였느냐?'는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가장 귀한 옥함을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후원에 참여, 미성대학교이 세계선교의 요람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자"고 했다.

김시은 목사(행정처장) 사회로 시작된 2부 비전 나눔 시간에는 뉴송교회 남성중앙단의 합창, 유동선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동영상 축하 메시지, 황의정 박사(대학원장) 학교현황 소개, 동영상 학생 간증, 김광렬 목사(이사장) 후원안내 및 약정을 위한 기도, 박미자매의 바이올린 연주, 다니엘 뉴먼 박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축사, 조종곤 목사(미주성결교회 총회장) 격려사, 총장 류종길 박사의 내빈 및 후원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남가주교협 최혁 회장, 결국 사임”

憂慮가 現實로...그래도 하나돼야



최혁 회장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제45대 최혁 회장이 2일 언론사 배포 보도자료를 통해 12월 2일부로 전격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는 주안예교회(담임 최혁 목사) 공식 이메일을 통해 발송됐다. 이로써 남가주교협은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또 다시 혼란이 예

상된다. 하지만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다음 회기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이미 상처와 부담이 너무 크다. 분열도 우려된다. 최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임기 동안 협력을 아끼지 않은 증경회장단, 임원진, 교계 선후배 목사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신임회장 공천실패와 선출 무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웹사이트 www.chdaily.com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이영인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론펬스, 알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l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Ivydream.com

제49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저희를 위해 관심과 크신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가주 목회자들이 하나되어 지역사회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하여 제49대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오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엄규서 목사
신임회장

백지영 목사
이임회장

일시 2015년 12월 13일(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

주소 933 Lake St., Los Angeles, CA 90006

문의 엄규서 목사 (213)820-9414

남가주 한인 목사회 회장: 엄규서 목사(213-820-9414) 총무: 최경일 목사(541-778-2676)
 Southern California Korean Ministers Association

“제8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 정기연주회”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윤두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반주 헬렌 박) 제8회 정기연주회가 지난달 29일(주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총무 강평근 목사 사회로 시작된 연주회는 단장 정윤두 목사의 인사말과 함께 성가합창으로 이어졌다.

정 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정기연주회를 통해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며 “오늘 찬양으로 인해 교회마다 영성이 회복되고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되므로 LA지역의 악한 어둠의 권세가 풀어지고 묵였던 자들이 회복되고 기쁨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정 단장의 인사말에 이어 시작된 성가합창에서는 “온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도, 기록한 주” 등을 합창하며 연주회의 서막을 올렸다.

특히 첫 무대를 고운 한복 차림으로 나선 사모들의 모습은 단아한 한국적미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지휘자 전중재 교수 편곡의 수준 높은 씨씨엠모음곡 합창은 특히 돋보였다.

특별출연으로는 바리톤 박재용 목사와 소프라노 박경숙 사모 및 조이플남성성교중앙단이 함께하며 참석자들에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보답했다.

성가합창은 “너로 인하여 주께 감사해, 우리는 주의 지체” 등을 합창



목사장로부부찬양단(단장 정윤두 목사)이 '주는 반석'을 합창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또한 전임단장인 주재임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메리 장로에게는 감사패를 각각 증정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그동안 이 찬양단을 위해 수고

한 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 후 김인철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 찬양단은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나성영

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소망관에서 연습한다. 가입문의는 총무 강평근 목사(818-468-8672)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OC기독교교회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민승기 목사 · 수석부회장 이호우 목사 선출



OC기독교교회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민승기 목사, 수석부회장에 이호우 목사가 인준을 받았다. OC교협은 상임이사회가 회장과 부회장을 공천하고 총회가 인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열린 총회에서 회원들은 민승기 회장과 이호우 수석부회장의 공천 사실을 보고받고 만장일치로 이들을 인준했다. 신임이사장에는 민경영 목사(증경회장), 총무이사에는 김기동 목사(직전회장)가 임명됐다.

김준형 기자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앞줄 오른쪽으로부터 네 번째)총장 류종길 박사

“미성대학교 후원의 밤 개최”

[1면으로부터 계속] 김 이사장은 한 사람의 신학교 후원이 놀라운 세계선교의 역사를 펼쳐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후원에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

탁했다. 윤석길 박사(교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3부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서는 김혜란 교수에게 명예신학 박사 학위 수여 및 축하패 증정

있었다. 로버트 클릿가드 박사(전 클레어몬트대학원 총장)는 축사로 김종환 박사(박사원장, 서울신대 명예교수)는 격려사로 각각 김 교수를 축하했으며 이정근 목사(명예총장)의 폐회기도 후 식사와 교제 시간을 가지며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한편, 미성대학교는 ATS에 가입한 ABHE 정회원이며 자체 I-20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에 개설한 D. Min 과정에는 현재 온라인 수강(한국) 35명을 포함 총 42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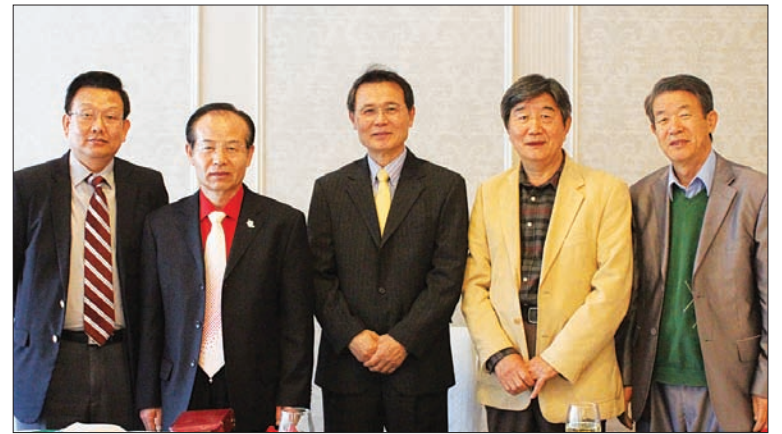
가을학기 수강신청 마감은 8월 20일, 봄학기 수강신청 마감은 1월 20일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를 전화 323-643-0301(행정처)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www.aeu.edu를 참고하면 된다. 주소: 1818 S. Western Ave., #409, LA, CA 90006

이영인 기자

“퓨리탄 신앙 승리 327주년 기념하자”

PARSC, 12월 15일 기념 예배



기사회견을 통해 이 예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PARSC 관계자들. (왼쪽으로부터) 김상선 목사, 정중훈 목사, 이완재 목사, 장광춘 목사, 이호민 목사.

퓨리탄 신앙 승리 327주년을 기념하는 예배가 12월 15일(화) 저녁 7시 나성삼일교회(담임 한석호 목사,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열린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단체는 퓨리탄개혁신앙연구회(PARSC)다. 퓨리탄이 누구였는지, 그들이 남긴 신앙 유산은 무엇인지 연구하고 알리

는 이 단체는 1688년 12월 18일 영국에서 일어난 명예혁명(Glorious Revolution)을 퓨리탄의 신앙 승리로 기념하며 매년 행사를 열고 있다.

PARSC는 1947년 12월 제임스 패커 박사에 의해 옥스포드대학교 틴데일 홀에서 탄생했으며 이완재 목사는 그 중 한 명이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주인목사회 수석부회장에 김종용 목사 임명”



김종용 목사
신임수석부회장

남가주주인목사회 수석부회장에 김종용 목사가 임명됐다. 지난 11월 16일 월서크리스천교회

에서 열린 49회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 출마자가 없어서 이를 선출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회기 수석부회장이었던 염규서 목사를 회장에 인준한 총회원은 이어 수석부회장 선출에 관하여 “신임회장과 임원진에 위임하고 공천위의 심의를 받기로 한다”고 결의했다.

그리고 총회 일주일 만에 남가주주인목사회는 김종용 목사를 수석부회장에 임명했다. 김종용 목사는 나눔과섬김의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기독교복음선교연합총회(CGMA) 총무, 미주크리스천신학대 교무처장을 맡고 있다.

김준형 기자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단단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칫 세상의 길로 가기 쉬운 것이 신앙생활이다. 목회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일까. 예수님께서서는 2,000여 년 전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3-14). 물질 만능주의와 성장제일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크리스천들에게조차 너무도 잊힌 말씀이지만, 귀 기울이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절절히 묻어난다. 한인타운 크렌셔 블러버드의 울림픽-피코 구간을 지나다 보면 만나는 하나크리스천센터(1135 Crenshaw Blvd., LA·목사 이용욱)는 오늘도 이진리를 따라 나름대로 좁고 험한 길로 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출범한 공동체. 현재 출석교인이 100여 명(어른 약 60명, 어린이 약 40명)에 달하는 이 교회는 시작부터가 남달랐다.



문턱이 낮은 교회인 하나크리스천센터. 이용욱 목사(왼쪽에서 두 번째)는 다채로운 문화사역으로 1.5세와 2세들을 이끈다.

누구나 맘 편히 찾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3> **하나크리스천센터**

USC 졸업 후 풀러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받은 이용욱 목사가 젊음의 거리인 6가와 노만디 코너 한 빌딩의 공간을 빌려 오프닝 예배를 드린 것은 한국의 IMF 구제금융 사태가 터진 직후인 1997년 12월. 찬양밴드의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200여 명의 참석자들과 함께였다.

“교회를 거부하는 20대 청년들을 전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었습니다. 6-12개월 정도 기본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어 일반 교회로 보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요. 음악, 영화, 인터넷, 기타 미디어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외모 관리에 시간과 돈의 낭비가 많다는 자각에 따라 30대 중반에 과감하게 ‘영국 신사’라는 별명을 포기하고 장발의 길로 들어선 그는 “전도기관처럼 출발했으나 처음 신앙을 갖게 된 이들을 위해 주일예배를 마련하면서 수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었다”고 회고한다.

초교과 독립교회로 1.5세가 주류를 이루는 하나크리스천센터는 ‘삼무교회’라 부를 만하다. 자체 건물, 사례비, 직분이 없기 때문이다. 우선 교회 건물을 리스해서 쓰고 있다. 다른 목회자 없이 홀로 목회하는 이 목사가(이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파트타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간사와 더불어 무보수로 봉사한다. 모두가 자발적으로 섬길 뿐 장로, 집사 등의 직분이 따로 없고 전 교인이 연말에 한 차례 열리는 공동의회에서 재정보고, 사업계획 등을 함께 다루고 필요한 토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교인 등록절차도, 구역, 목장, 선교회 등 관리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 헌금이라는 것이 다 감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교인들은 여러 복잡한 명목 없이 주일헌금을 예배실 뒤에 비치된 헌금함에 저마다 넣는다. 점심도 자원자들이 돌아가며 준비하고 없을 때는 도넛을 먹는다.

“10년 전에 합동신학대학원 송인규 교수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에게서 ‘삼무교회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21세기의 대안교회’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지요.”

주일예배는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부 ‘열린전통예배’(오전 8시30분)는 교회에 다니다 중단한 기성세대를, 영어로 진행되는 메인 예배격인 2부 ‘패밀리위십’(오전 11시)은 부모 어린이 청소년 모두를, 3부 ‘하나열린예배’(오전 11시30분)는 청장년을 각각 주 대상으로 삼는다. 자녀들은 패밀리위십 후 45분간 연령별로 주일학교에 참여한다. 오후 2-4시에는 청년 제자훈련이 이어진다. 매주 첫째 토요일과 셋째 목요일 저녁에는 엄마들과 아빠들을 위한 토론 중심의 성경공부

직분 건물 사례비 없는 ‘삼무교회’ 턱없는 목회로 불신자 마음 열어 전도 가정사역 영성계발 강화계획

가 각각 마련된다. 이밖에 밸런타인 뮤직 카페, 부활절 파트러 밴킷, Pop·CCM 라이브 콘서트, 패밀리 피크닉, VBS 캠프, 가을 라이브뮤직·무비 카페, 추수감사절 페스티벌, 크리스마스 콘서트 투어, 연말 셀리브레이션 등 독특한 행사가 연중 진행돼 교인들을 평안의 줄로 묶는다.

또 양로원 선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문화사역에 힘쓴 결과 이 교회 영상문화선교팀이 제작한 단편영화가 영화제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열매를 거두기도 했다.

불신자들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문턱이 없는 교회를 지향점으로 삼기 때문에 하나크리스천센터에서는 모든 사역이 마음 편한 분위기에서 진행된다. 그래서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캐주얼한 미국교회 같다”는 평을 듣는다.

이 목사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고 가정과 일터 등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이끈다.

이 교회는 연합사역에도 열심이다. 2세들의 ‘조용한 탈출’

현상을 막을 길을 모색하는 ‘차세대사역연구회’에 동참하는 한편 이 목사와 다른 교회 찬양팀 리더들이 작은 교회들을 방문해 추억의 찬양집회를 갖는 사역단체인 ‘8090 찬양팀’을 적극 후원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이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의 하나됨과 교제를 위한 ‘삼삼오오 찬양예배’도 열렸다. 웅기 종기 모여든 교인들은 개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모두가 주안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하늘 아버지를 함께 찬송했다. 이 예배는 내년에도 4차례 더 열린다.

하나크리스천센터에도 고민은 있다. 예배 출석인원이 서서히 줄어드는 한편 새 교인의 전도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중 대표적이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들이 최근에 거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파요.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모든 예배와 프로그램, 이벤트, 인테리어 등을 업그레이드할 때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사역 전반을 안팎으로 개조하는 것이고요.”

이 목사는 “우리만의 개성을 되찾으려고 ‘가정사역’이라는 목표를 재정립한 다음 연령, 지역, 문화권별로 사역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단계적인 전도전략을 세웠다”며 “거기에 필요한 사역팀 훈련, 자금 확보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전통예배’와 ‘패밀리예배’를 통한 전도, 청장년 영성계발, 청춘 토크콘서트인 ‘티라곤’(티라미수 라이프 콘서트) 활성화, 결혼 전 카운슬링을 포함한 가정사역, 작은교회 이벤트 기획 및 운영 지원사역 등 머지않아 이 교회가 활발하게 펼쳐 나갈 사역이 기대된다.

하나크리스천센터의 목회가 모든 교회의 모델은 될 수 없지만, 이민교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끌어안는 한편 가치관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임은 분명하다.

문의: 323-934-0058

김장섭 전문위원

천천히 다 돌려받으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각종보험·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한복을 곁게 차려입은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합창하고 있다.

만남의교회 “이웃초청 추수감사예배” 드려

만남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가 추수감사주일인 지난 11월 22일 오전 10시 이 교회 본당에서 친구와 이웃을 초청해 ‘추수감사절 5감(感) 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1부 예배는 기존 형식의 예배에서 벗어나 오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와도 어우러져 눈길을 끌었다.

이정현 담임목사는 “개인적인 예배에서 공동체 중심의 예배, 수동적인 예배에서 능동적인 예배, 정적인 예배에서 동적인 예배, 형식적인 절기 예배에서 삶의 현장의 감사가 담긴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고 말했다.

예배 시작부터 유스 그룹, EM 찬양대와 사물놀이의 흥겨운 연주에 맞춰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에 입장하는 모습이 재현됐다. 농악대와 사물놀이패의 북 연주와 연합찬양대의 국악찬양은 인상적이었다. 특히 폐회 찬양은 ‘왜지나 칭칭나네’라는 우리 가락을 이종한 장로가 선창하고 다같이 부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듯 승리로 예배를 마쳤다.

은혜로운 간증시간도 있었다. 이재철 집사는 “두 교회가 하나되어서 교회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하

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호 집사는 “죽은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면서 “살아있는 공동체로의 회복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는 이사야 43장 18-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자”고 설교했다. 이목사는 “우리는 과거의 기억 속에 사로잡힐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서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성찬식에서는 사랑의 떡을 나누고 이정현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친교행사인 뒤풀이는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고르예술단의 난타 북 공연, 김원일 명창의 창, 진도 북춤, 장구춤, 삼고무 북춤, 사물놀이, 톱 연주, 태권도 시범, 크로마하프연주와 바다위십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이어졌다.

한편, 만남의교회는 해외한인장로회(KPCA)에 속한 교회로 지난 5월 17일 벨리서울교회와 만남의교회가 통합 감사예배를 드리며 하나 됐다. 이인규 기자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맨앞줄 정중영가 수회신교단의 ‘느헤미야 기도회’에 참여했다.

주님의빛교회 “느헤미야 기도회” 동참해

“주님은 이 땅에 큰 불을 일으키시기 위해 불씨 같은 느헤미야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24시간 52일 간의 기도 성벽을 세워 열방이 주 볼 때까지 무너진 세상의 영역들에 주의 영광이 임하길 기도하는 순회신교단 주최 느헤미야 기도의 불꽃이 캘리포니아에서도 타올랐다.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지난 11월 9일(월) 자정부터 20일(금) 자정까지 두 주간 동안 느헤미야 기도회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기도의 순서를 맡은 주님의빛교회 기도팀들은 이날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

유럽에서 진행된 미션넷 컨퍼런스를 통해 40여 개국의 3000여 명 청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

단한 소식,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히고 전도 금지 공약을 내세운 서울대 학생회장을 위한 기도, 한국 청소년들의 윤리적인 개방성과 동성애 인식의 변화 등 이들은 미리 만들어진 교본을 함께 읽고 성경도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서로 나누며 함심으로 기도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한 성도는 “처음에는 한 시간도 제대로 기도할 수 없었던 내가 핍박받는 크리스천을 위해서, 크리스천을 핍박하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힘이 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다”고 말했다.

또, 한 장년 성도는 “기도를 통해 세대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세대간의 장벽을 허무는 기도의 힘을 발견해 너무 감사했다”고 전했다.

예수커뮤니티교회 새생전 입당 감사예배

예수커뮤니티교회(담임 박경일 목사)가 새생전 입당 감사예배를 드린다.

- *일시: 12월 6일(주일)
- *시간: 오후 4시
- *장소: 예수커뮤니티교회
- *주소: 15246 Barnwall St., La Mirada, CA 90638
- *문의: 562-544-2332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백석영 목사)에서는 한 해를 마감하며 선후배 동문들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자리를 만든다.

- *일시: 12월 5일(토)
- *시간: 오후 5시
- *장소: 왕성(중식당)
- *주소: 1199 N. Euclid St. Anaheim, CA 92801
- *문의: 714-517-1945

이 교회 담임인 주혁로 목사는 “기도 훈련을 통해 성도들이 개인 중심에서 선교 중심으로 신앙이 바뀌었다”며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인규 기자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①

《예루살렘 편》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술탄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감람산 지구

예루살렘의 동부 구릉에 있는 산. 올리브 산이라고도 한다. 4개의 봉우리로 이뤄진 이 산의 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이 시작된 겐세마네동산이 있으며,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 산 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지 40일 후에 승천하셨다.

현재 이곳에는 예수승천기념교회, 주기도문 교회를 비롯한 수많은 교회가 있다. 예수승천기념교회는 십자군에 의해 재건됐으나, 12세기 초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현재까지 이슬람의 소유로 남아 있다. 산 정상에 오르면 예루살렘 시가지, 요르단 계곡, 사해의 북쪽, 모압의 산들을 바라볼 수 있다.

1 예수승천기념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40일후에 승천하신 곳을 기념해 만든 교회. 팔각형의 담에 둘러싸여 우뚝 솟아 있다. 승천할 때 발자국 흔적이 남은 승천바위가 있다.

2 주기도문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던 곳. 주기도문이 시작되는 라틴어를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다. 'Pater Noster'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라는 뜻의 라틴어다.

3 겐세마네 교회

겐세마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막 14:32.요 18:1, 마 26:36) 세계 12개국의 모금으로 건축되어 만국 교회로도 불린다.

4 황금문

감람 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면 성전 산 동편으로 보이는 문. 11개 예루살렘 성문 중 가장 아름다워 '미문(美門)' 혹은 황금문으로 불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문이다.

문의: 엘레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매니저 김상준.

기독일보

편집고문: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지사명: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감사의 계절을 맞아 탑미디어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교시디

행사용 시디앨범

각종 현수막 및 스탠드배너

기념 수건

2016 축복 말씀카드

신년표어를 담은 열쇠고리, 텀블러, 머그컵 제작

\$20 OFF

(\$100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합니다.)

Code:Thanks153

이메일 주문시 쿠폰코드를 써 주시면 됩니다. 쿠폰은 1회 사용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4일 주문시까지.

영광을 얻기까지

데살로니가후서 1: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교회의 소망적인 믿음

본문에서는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서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라는 지시를 받고 파송 받아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실라는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른 팔과 같은 요긴한 동역자로, 선교의 협조자로 봉사해 왔습니다.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함께 했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봉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목회자 입장에서는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한마음으로 계속 애지중지 가꾸어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교회가 소망적이고 모범적으로 믿음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그들의 수고는 넘치는 보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전한 복음의 말씀에 데살로니가 인들은 100%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살후1:10). 그랬기에 그들의 신앙은 잘 자랄 수 있게 되었고, 같은 하늘소망을 목적으로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조하고, 아끼고, 사랑의 교제가 뜨거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제시하신 약속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연고로 무시하고, 거부하며, 불신함으로, 결국 자신의 이권야심(利權野心)의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그 말씀들은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불신앙이라는 벽에 부딪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실패와 고통, 절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 끝까지 참고 견디는 믿음

목회자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신자는 이미 복 받은 성도입니다. 목회자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 인생은 영적인 소망도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형편도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지경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믿어진다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소망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속해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곳은 원수 마귀가 행세하는 적진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천국의 역사를 확장시키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습시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서 존경받고 칭찬들을 것이라는 기대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을 바로 지키느라고 받은 고통은 절대로 손해가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마침내 이기도록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으로 체험하실 것입니다.

전날에는 마귀에게 소속되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속하신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 회개했기에, 마귀와의 인연을 끊고 그동안 지었던 죄를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아 하나님께 소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의 허락받은 영원하고 신령한 조건을 바라보며 새 출발하는 것이 중생한 성도의 사는 목적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기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장 중에는 중생한 성도로서 계속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음을 알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직업을 갖는 것 또한 신앙을 위해 잘 고려해야 할 일입니다.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전의 주인 되었던 마귀가 그런 우리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離間)시키고 믿음을 뒤흔들어 시험 들게 하여 또다시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완전히 마귀에 속한 자

도 아니요,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할 수 없는 갈등과 고통, 고달픔의 연속일 것입니다. 이들은 생각으로는 믿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 얻어 생활하고 있더라도 결국에는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면 마귀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단절하고, 그 울무에서 벗어나서 해방과 은혜 안에 자유 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20)하셨습니다.

3.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데살로니가후서 1장 6-7절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값의 보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오로지 믿음 지키려는 일념으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영적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귀가 괴로움을 가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은 편히 쉬는 것을 의미하는데, 헬라어로 풀이하면 ‘구겨졌던 것이 펴지고 얽혔던 것이 풀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9)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괜한 트집을 잡고 핍박을 한다 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 사람이 분별없이 하는 짓이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할 때, 여러분의 신앙인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 중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하늘의 뜻을 받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믿음의 정절로 목적으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했다면, 그 모든 고난의 분량만큼 내 몫으로 돌려받게 됩니다(살후 1:11-12). 나의 수고에 따라 내게 돌아올 분깃이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입니다.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자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자셀러모집중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격: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력자

제출서류: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출처:선한목자교회
우편주소: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주소:info@sunhanchurch.com

문의:(909)591-6500



www.sunhanchurch.com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가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김인수 교수의 한국 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4)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향후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회 형성에 지대한 결과를 남겨 놓았다. 우리는 여기서 그 결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이 운동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독교의 진리를 터득하게 했다. 기독교 진리가 한국 교인들 마음에 뿌리내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여러 가지 동기로 받아들였으나 참 기독교 진리를 터득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을 통해 비로소 참된 회개와 성령의 감동,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결단하는 삶, 즉 전형적 그리스도인 됨의 과정을 통과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던 사당(祠堂 devil house)을 이 부흥운동 후 헐어 버리는 사례가 빈번했던 현상이 이를 입증한다. 한 선교사는 부흥운동이 가져온 한국인들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이 신앙 체명의 결과로……신자들 가운데 의와 죄의 의식이 심화됐다. 이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교훈은 한인들에게는 생소했다. 한인들에게도 죄와 의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달랐다. 이 부흥은 교인들 마음에 죄의 극심한 죄악성을 깨닫게 해 준 동시에 의에 살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 책임이란 인식을 깊이 넣어 주었다.

특히 이때 많은 회개 항목 중, 지금까지 유교적 관념으로 전혀 죄로 여기지 않았던 축첩, 노비소유, 조혼, 음주, 흡연, 아편복용, 아동구타 등의 죄악을 고백하고 참회했다. 이에 따라 첩과 소실을 정리하고, 노비를 해방시키는 등의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행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이런 한국 교회 형질(形質)의 정착은 앞으로 이 교회가 민족교회로서의 갈 길을 찾았다는 의미이다. 1910년 에딘버러(Edinburgh) 국제선교협회의회에서 한국의 대부흥에 대해, “신생 한국 교회에 독자적 성신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말한 것 같이 한국의 독자적 교회 역사가 시작됐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는 한국 교회의 급격한 성장이다. 어느 부흥운동이든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교회 성장이다. 1907년 전국 교회에 부흥의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 필연적 결과 중 하나는 신자들의 전도



김인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에 힘입은 교회 부흥이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1906년에서 1907년 사이에 장로교회의 성장은 세례자 수가 12,506명에서 15,097명으로 29%가, 원입은 44,587명에서 59,787명으로 15,200명이 늘어 34%가 증가했다. 따라서 1906년의 교인 수 54,987명에서 1907년에는 73,844명으로 증가하여 34%가 증가한 셈이다. 감리교회도 역시 그 수가 증가 하기는 마찬가지여서, 1906년에 18,107명의 교인이 1907년에는 39,613명으로 무려 118%의 증가를 나타냈다.

또한 부흥운동은 기독교 학교 증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06년 6월 현재 208개의 학교가 이듬해 같은 달에는 344개로 늘어나 무려 130개 이상 학교가 증가했다. 자연히 학생들도 늘어나 1906년에 3,456명이었던 학생 수가 이듬해에는 7,504명으로 늘어났다. 기독교 학교 학생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이는 앞으로 일어날 항일운동의 선두 주자가 될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예시한다.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됐을 때 기미 3·1 독립운동이 촉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셋째는 도착적이고 독특한 한국 교회의 특징이 확립됐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했지만 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가 주도한 ‘새벽기도회’라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도회가 정착됐다. 새벽기도회는 세계 그 어느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 교회 특유의 기도회 모습이다. 이 기도회에서 목회자들과 일반 교인들이 영적 힘을 얻고,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소원을 아뢰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다. 평양에서 새벽기도회가 시작된 이래 전국 각지 교회에서 새벽기도회가 실시됐다. 평복 강계의 한 교인은 개종하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새벽기도회에 출석하여 지금까지 16년간을 계속한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가장 세상에 드물고 모범할 만한 일은 주문언(朱文彦)씨라는 로인이 16년 전 본 곳 교회 설립으로부터 예배당에 와서는 새벽 기도를 오늘날까지 계속하다더라.” 이 새벽기도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에 계속돼 오면서 교회의 성장과 영적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새벽기도회를 실시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통성기도가 시작됐다는 사실이다. 그 일은 목격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시작됐다.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이엄 리(Graham Lee) 선교사가 사회하면서 회중에게 기도하자고 하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가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니 온 회중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정황은 실로 글로 적을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런 혼란도 없었고 도리어 심령과 심령이 호응하는 화음이 서리었다. 기도를 울리고 싶은 충격을 저항할 수 없던 마음과 마음이 사귀는 심교(心交)였다. 기도 소리는 마치 폭포수 소리와 같아서 기도의 대해조(大海潮)가 하나님의 보좌로 밀려 올라가는 듯하였다.”

부흥운동은 이렇게 통성기도라는 한국 특유의 기도 방법이 도입돼 계기가 됐다. 이 기도는 새벽기도와 더불어 부흥운동의 결과로 남아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주요 기도 방식 중 하나다.

또한 이 기간 중에 철야기도가 시작됐다. 저녁집회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으므로 멀리서 온 교인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교회에 남아 철야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새벽기도회에 참석함으로써 자연히 철야기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도가 시작되는 계기가 됐다.

이 기간 동안 평양을 방문했던 영국 성서공회 본부 총무 린슨(J.H.Ritson)은 “사람들이 밤새 교회에서 기도하며 머물러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런 한국교회의 특징적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가 더 이상 서양 종교가 아닌 것으로 묘사될 수 있었다.” <계속>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에게

수년 전 한 여인이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 자신이 뉴올리언스에서 사업도 제법 크게 하던 사람인데,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이곳 LA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는 것이다. 얼핏 들어도 99%는 진실이 아니었다.

그러나 ‘목사는 알면서도 속아줄 때가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에 약간의 돈을 드리고는 기도해 드렸다.

그런데 그 후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주일 날, 그 여인이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와서 주일에배를 드렸다. 내가 드린 돈을 갚았을 뿐 아니라 감사헌금까지 하고 갔었다. 나는 아직도 그 여인의 정체(?)가 궁금하다.

한국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승무원이 키가 크고 미모가 뛰어나다. 나는 한국 항공사들이 승무원 채용 기준으로 외모를 우선적으로 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비행기를 타면 양쪽 선반에 짐을 넣는데, 그 곳에 손이 닿으려면 키가 165cm는 돼야



한천영 목사
갈릴리온교회

한다는 것이다. 그라야 승무원이 집 넣는 것도 도와주고,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상 사태 때 승객을 도우려면 신체조건이 뛰어나야 된다고 하니 그것도 이해가 된다.

사람이 성숙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쉽게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다. 종종 눈에 보이는 대로, 혹은 남들이 말하는 대로 누군가를 평가하다가 나중에야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함께 노름을 해보거나 여행을 떠나봐야 한다는 세상의 말이 그래서 일리가 있는지도 모른다.
예수님도 자신을 부분적으로 평

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늘 암송까지 하던 사람들이었다. 역시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사람들의 유형이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쉽게 말하고 평가할 때가 있다. 오해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사소한 문제가 큰 문제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미숙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반면에 성숙한 공동체는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좋은 부분에 집중해서 그것이 극대화되도록 도와준다. 직업이 목사인지만, 누굴 만나도 한 두 마디 해 보면 대충은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 그래도 그 사건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사건과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냥 할 수 있는 한 선대(善待)하려고 한다.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담임목사 청빙 공고플로리다 주에 있는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이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자격 및 요건

- 1.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이거나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지신 분
- 3. 이중 언어(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 4.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 2.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원(M.Div) 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각1부
- 3. 자기소개서(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포함 -가족사진 포함)
-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영어 설교 가능한 분은 1회 분에 한해서 영어 설교 제출)-DVD or Web link 등
- 5. 연령 45-55세 미만(사모님 피아노 반주 가능 우대)
- 6. 추천서 2부(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제출 방법

- 1. 우편주소: Lakeland Korean Church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1018 Neville Ave, Lakeland, FL 33805
- 2. E-mail: peterkim1953@gmail.com (1-316-644-0035)
청빙위원회 서기 Peter Kim
- 3. 서류마감: 2015년 11월 14일

기타 사항

- 1.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혹은 E-mail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로 모든 제출 서류를 보냈음을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3.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 4. 교회 홈페이지(www.lkpc.onmam.com) 통해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길 순례체험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도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도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NEW | 미서부일주

한층더 여유로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일 관광
남만의 샌프란 시스코 금문공원, 소살리토, 트윈피크 관광
1. 하나투어만이 최신행 리무진 버스! 2. 최선을 다하는 고객감동 서비스
3. 최고의 호텔로 내집처럼 편안한 숙박! 4. 베테랑 가이드와 최고의 식사!

새로운 감동의 시작.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투어 New 미서부 관광



- 2박 3일
- 그랜드캐년 2박 3일 \$299 출발: 화
- 3박 4일
● New 요세미티/샌프란 3박 4일 \$399 출발: 목, 금, 토
- 미서부 3대 캐년 3박 4일 \$389 출발: 월, 화
- 5박 6일
● New 미서부 5박 6일 \$599 출발: 화, 토
- 6박 7일
● New 미서부 6박 7일 \$689 출발: 월, 화
- 그랜드캐년 8대 캐년 6박 7일 \$799 출발: 12/17
- 스카이워크 2박 3일 \$349 출발: 월
- 기차여행 1박 2일 \$229 출발: 월, 수, 토
- 멕시코 1박 2일 \$179 출발: 월, 수, 토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212.706.9177
- 라스베이거스 사무소: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나즈 모바일
렌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0이상 Pre Pay 가능)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가치있는 선택 Q water

무한 나노 에너지 산소수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의 물 특성은 그대로 살리고 순수산소의 입자를 일반물보다 수백만배 이상 용해시킨 물입니다.

Q water

중류공법으로 탄생한 무한 에너지의 음료 **플로전기(분해)나 고속모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친환경적임 세포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을 유지 나노기포가 1ml당 2억개 이상 용존되어 용존량이 지속적 유지 나노에너지 산소수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증 다양한 분야로 적용가능하며 타제품과의 용이한 결합성



예로부터 물 좋은 고장 장성에서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특수한 중류 공법과 EPU(Energy Processing Unit) system, G.K Oxy9(주)의 물 1ml당 200억개 이상의 산소와 수소를 고농축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이 융합하고 무기포용해장치를 통해 물속에 산소를 완전 용해시켜 인체에 가장 유용한 산소 농도의 상태(30ppm이상)를 유지하는 전세계 유일의 나노에너지 산소수이다.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물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는?

전립선, 당뇨, 아토피, 여드름, 관절염, 통풍에 아주 좋은 효과

▶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및 면역 조절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높여줍니다. 병원균을 치사율에 가깝게 인공 감염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검증 하였습니다.

Q water를 체험한 여러 사람들이 Q water의 효능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체험 사례와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마시기 편합니다.

물이 부드러워,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들도 이 물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빨라, 마신 후 소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생체기능을 맞추어 줍니다.

수일 내에 번비가 없어지고 피로감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 15년간 당뇨병을 심하게 앓아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은 당뇨후유증의 하나로 매일 아침 발바닥이 몹시 쭈시고 마치 바늘로 마구 찌르는 듯 해서 한동안 걷지도 못하는 Diabetic Nerve Pain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Q-Water를 약 1주일 간 마셨더니 놀랍게도 그 발바닥 통증이 거의 사라져서 가뿐히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혈당수치 조절도 기대하며 계속 Q-Water를 마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 - 미주한인재단 글렌데일 지회장 - 태권도 공인 7단
- 전 월서경찰위원회 회장 - 한인사회에서 범죄피해자 상담(CVA)으로 30년간 봉사

Quality water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의 필요성

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흡수가 빨라 인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Q water는 3~4일 만에 몸이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Q water를 마시면 맑은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 집니다. 명인들의 연구결과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임산부, 수험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노에너지 산소수란 일반물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 고유의 물 특성을 그대로 순수산소(99.9%)를 일반물보다 5~20배 용해시켜 놓은 물로, 용전산소는 인체의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

산소는 물로 마셔야 효과가 더욱 좋다.

물로 마시는 산소는 호흡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흡수효과가 있다.

ELIM USA, INC.
1201 S.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1

www.elimwater.com | www.urimul.co.kr
Tel. 213.235.7360
213.909.4499

디톡스삼 & 대리점
판매원 하실 분
모십니다.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이슬람 바로 알기

왜 이슬람은 테러하는가

1990년 이후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는 이슬람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 13일 파리에서 테러로 인해 약 130명이 사망하고, 340여 명이 부상 당했다. 그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왜 이슬람은 테러를 일으키 것일까? 먼저 이번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의 이슬람 형성 과정과, 이슬람에서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랑스와 이슬람

프랑스의 인구는 약 6천 4백만 명이다. 종교별 분포는 로마가톨릭 83-88%, 개신교 2%, 유대교 1%, 이슬람 10%, 무응답 4%다. 프랑스에는 2,200개의 이슬람 사원이 있으며, 실제로 로마가톨릭과 기독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슬람 교인들이 매주 종교적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이번에 테러가 일어난 파리에는 프랑스 전체 무슬림의 38%가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슬림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종교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리잡게 됐다. 이슬람 자국화를 위하여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에서, 젊은 무슬림들은 자신이 프랑스 인이기에 앞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자신을 특징짓는 요소인가?'라는 질문에 무슬림 학생들 중 3분의 1은 종교라고, 5%만이 프랑스라고 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프랑스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했다. 1945년 3월 3일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프랑스의 '샤를 드 골(Charles de Gaulle)'은 연설에서 "프랑스의 경제 회복에 주요 장애물은 노동력"이라고 한탄했다. 당시에 약 150만 명의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집계됐고, 이를 보강하기 위해 북부아프리카인 무슬림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에는 1973년까지 약 1백만 명의 북부아프리카 무슬림과 그 후손들이 살았으나, 현재 무슬림 인구는 6백 40만 명이다. 그리고 25세 이하의 프랑스 인구 중 4분의 1은 무슬림이다. 무슬림들이 프랑스에 해를 끼쳤던 것만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약 10만 명의 무슬림들이 프랑스를 위해 싸웠다. 또한 프랑스 경제는 노동 이민자들에 의하여 1970년 중반까지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프랑스에서 그 사회의 하층민으로만 살아 왔다. 프랑스인의 생활을 따라가지 못하던 그들은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게토(Getto)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세대가 이어지면서 그들 게토 안에서

프랑스인들에 대한 불신과 증오는 커져갔다.

2. 이슬람과 지하드

아랍어-영어 사전에 따르면 '지하드'는 '자아드(jaahad, 스스로 노력하다, 애쓰다)'라는 동사의 동명사(masdar)이고, 그 뜻은 '애쓰, 노력, 또는 불만, 불찬성 및 비난의 대상에 대하여 투쟁하는 데 자신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이슬람 연합에는 지하드를 '싸우다'로 정의한다. 이것은 전쟁 뿐 아니라 개인 또는 공동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형태의 전투를 포함하는 무란의 개념으로서, 무슬림들의 안전을 추구하고 이슬람의 가르침을 실천한다는 의미로 확대됐다.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단 두 가지 상황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 첫째는 방어할 때다. 지하드는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라 방어적인 전쟁이다. 무슬림들은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그들의 자유, 평화, 정의를 훼손당했을 때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 연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무슬림은 수많은 침략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 영토와 부를 얻었기 때문이다.

둘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롤란드 아모어(Roland Armour)에 의하면, 7세기 이슬람의 팽창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지하드의 한 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이 이슬람의 직접적인 법의 통치를 벗어나 있다는 사실이 잘못되었다는, 무슬림들의 논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지하드는 무슬림들이 샤리아 아래에서 유포아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테러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일으킨 지하드다.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싸우고 있는 수니파 무장단체 IS(Islam State, 이슬람국가) 안에 약 2만 명의 외국인이 참여하고 있는데,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그 중 프랑스 무슬림은 1,200명이다.

3. 이슬람의 구원관

이슬람에 있어서 알라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슬람이 행위종교이기 때문이다. 꾸란에 의하면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4가지가 있다. 첫째, 숙명론에 근거한 '알라의 일방적인 선택'이다. 인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알라가 알아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숙명론이라고 한다. 숙명론에 의하면 인간은 살아 있는 한 구원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러 가로되 알라께서 명령한 것 외에 우리에게 아무것도 있을 수 없나니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이 사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는 분이시라"(꾸란 9:51)

둘째, 선행을 많이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 그 이유는 착한 일을 많이 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슬림들은 "착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와 악한 일을 기록하는 천사가 항상 있기에 모든 행동을 기록해, 마지막 심판 날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을 저울에 달아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천국 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그때 그의 선행이 많았던 자들은 변성할 것이며 그의 저울이 가벼운 자들은 그들의 영혼을 잃고 지옥에서 영생하며"(꾸란 23:102-103)

셋째,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에 관해서는 무함마드의 언행록인 하디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지난 9월 이슬람의 성지순례 기간 중에 메카에서 크레인이 무너져서 100명 이상이 죽고, 천수백 명이 암사한 일이 있었다. 그때 러시아 이슬람 자치공화국의 정부 수장인 람잔 카디로프가 방송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대형 암사 사고는 알라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그 이유는 "성지순례를 떠나는 무슬림들은 바로 그곳에서 죽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성지순례 도중 암사당한 것은) 알라의 선물이며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가 꾸란에 있다. "그곳에는 예증으로서 아브라함의 발자국이 있나니 그곳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 안전할 것이며"(꾸란 3:97)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성지순례 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알라와 이슬람을 위한 전쟁, 즉 지하드에 참전했다가 "순교"할 경우다. 꾸란의 많은 구절이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로 하여금 알라의 길에서 성전케 하여 내

세를 위하여 현세의 생명을 바치도록 하라. 알라의 길에서 성전하는 자가 살해를 당하건 승리를 거두건 알라는 그에게 크나큰 보상을 주리라"(꾸란 4:74), "알라의 길에서 순교한 자가 죽었다고 생각지 말라 그들은 알라의 양식을 먹으며 알라의 곁에 살아 있노라"(꾸란 3:169) 이처럼 이슬람의 알라는 알라와 이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이들에게는 커다란 보상을 준다.

꾸란에 따르면 순교하는 것은 알라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 순교를 뜻하는 헬라어가 마르투리온(martyrion)인데, 그 어원은 '증인'이라는 뜻의 '마르투스'(martus)다. 이슬람에서도 증인에 해당되는 단어가 샤히드(shahid)이며, 순교(martyrdom)란 말도 무슬림의 믿음의 고백(shahada, 샤하다)에서 나왔다. 그 고백은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이다"라는 것이다. 무슬림들이 지하드를 할 때에 그 주된 동기는 "지하드에서 죽은 사람, 즉 샤히드라 불리는 사람은 곧바로 천국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디스에 의하면 알라를 위하여 지하드를 하다가 순교한 사람은 6가지 상을 받는다고 한다. 첫째,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 사함을 받고, 둘째, 지옥의 징계를 면제받고 천국에 거하게 되며, 셋째, 더 큰 테러에서 보호를 받으며, 넷째, 세상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좋은 홍옥(Ruby)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이며, 다섯째,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며, 여섯째, 친척들 70명의 중보자 자격을 갖게 된다.

그렇다면 꾸란에 묘사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술과 젖과 꿀이 흐르는 정원에서 섬세한 비단옷을 입고, 금으로 장식된 침대에 기대어, 마음껏 과일을 먹으며, 소년들이 따라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지 않는다. 알라가 천국에 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같은 나이의 새로운 배우자들과 어울린다. 천국에서 기

다리고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꾸란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에덴의 천국이 바로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 놓고 있나니 그들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풍성한 과일과 달콤한 음료수를 청하며 같은 나이의 눈을 내리감은 순결한 여성들이 곁에 살아 있노라"(꾸란 38:50-53), "눈이 크고 아름다운 배우자가 있으며 잘 보호된 진주와 같도다"(꾸란 56:22-23),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아름답고 눈이 큰 배우자를 결합시켜 주니"(꾸란 44:54), "그 안에는 눈을 내리감은, 어떤 인간도 진도 접촉하지 못한 배우자가 있나니"(꾸란 47:56), "눈을 내리감은 배우자가 정자에 있나니"(꾸란 55:72).

뉴욕 9.11테러에 참여해 비행기를 납치하고 자폭한 대위 가운데 이집트인 아타(Atta)의 유품인 약 5페이지의 메모에는, 어떻게 비행기를 납치하고 자폭할 것인지를 요약해 놓은 상부의 지시와 자신의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침착해라. 침착해라.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를 곧장 낙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알라는 위대하시도다. 알라야! 나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행위를 통하여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이슬람 전사로서 테러를 하면서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한 자신을 알라가 받아 주기를 바랄 따름이다. 이슬람이 성장할수록 테러의 위험은 높아만 간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테러에 대하여 앤드류 크로스(Andrew Cross)는 타임즈지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이슬람 율리주의자들이 테러를 자행하는 것은 가난이나 절망이 원인이 아니다.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자기 땅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왜곡된 이슬람 사상이 주된 동기이며, 지하드에 참전한 자에게 하늘이 보상한다는 사상 때문이다."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의 지도를 받는 무슬림 청년들. ©FIM국제선교회 제공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그때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
드보라 김 | 나침반 | 224쪽

40대에 미국으로 이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저자의 하나님 사랑 고백. 저자는 그 분 안에서의 모든 어려움은 이유가 있고,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한다.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견디며 자신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저자는 하나님 마음을 진심으로 품을 수 있는 현재가 행복하다고 고백한다.



말 VS 행위
듀웨인 리트핀 | 아가페북스 | 256쪽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인 '말과 행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모색하고, 둘의 적절한 성경적 균형을 추구함으로써 옳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다. 저자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강조되는 '행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복음은 본래 언어적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언어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터미네이터 라인 뒷
권여원 | 예영 | 256쪽

첫 작품 <23:59>에 이은 두 번째 소설. '성경 예언대로 어느날 문득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라진다면 얼마나 황망하겠는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휴거 사건 이후 인체 칩은 숨겨 놓은 발톱을 드러내고, 부여된 명령어에 의해 사탄에게 경배하도록 엔터키를 누른다면 당신의 영혼은 어떻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저자는 '당신의 영혼을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성장
최은영 | 두란노 | 224쪽

두 아들을 둔 엄마인 저자는 자녀들이 얼마나 자신의 사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외면한 채, '상담학계의 1등'이 되기 위해 밤낮없이 달렸다고 한다. 그러던 중 큰아들의 심한 방황과 아버지의 병상 신앙고백을 통해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현주소를 직면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 자신의 경험이 토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상담서적과 달리 해법이 아주 실재적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헨리 나우웬과 아씨시 프란치스코 입문서”

상처 입은 치유자, 기쁨에 찬 가난에 대하여

토머스 머튼, <디트리히 본회퍼> 등 주요 인물들의 입문서들을 펴내고 있는 출판사 비아(VIA)가, <헨리 나우웬>과 <아씨시 프란치스코>를 잇따라 펴냈다. '상처받은 인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부제의 <헨리 나우웬>은 20세기 대표적 영성가이자 작가인 헨리 나우웬에 대해 '상처 입은 인간', '상처 입은 그리스도', '상처 입은 치유자' 등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후에는 그의 사목 활동에 대해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한다. 헨리 나우웬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에야 그의 저작들을 처음 읽기 시작했다는, 영국의 침례교 목회자인 저자는 “네덜란드 출신의 동성

애자이자 로마가톨릭 사제가 쓴 책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은사주의자이자 복음주의자인 나는 적잖이 냉소했지만, 이후 놀랍게도 그가 예수를 열렬히 사랑했음을 알았다”며 “나우웬은 내가 수년간 물어두려 했던 불안이라는 상처를 그와 함께 돌아볼 것을 종용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나우웬의 삶을 조명하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이를 위해 ‘존재한다”며 “치유자로서 우리가 제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라고 말해야, 혹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이다”고



헨리 나우웬
위리엄 러들
비아 | 112쪽

말하고 있다. <아씨시 프란치스코>(사이먼 콕세 지, 비아 124쪽)의 부제는 '기쁨에 찬 가난, 기도로 빛어낸 기쁨'

이다. 현 교황이 '선택'한 이름이기도 한 프란치스코에 대해, 영국성공회 사제이자 프란치스코수도회에 속한 저자는 프란치스코의 기도와 행동에 주목하면서 그의 삶을 살피며, '성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삶에 도전을 던지고자 한다. 이후에는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현대적인 시도들을 소개한다. 여기서는 빈민·노숙 생활이나 자연과의 대화, 무슬림 전도 등 자칫 현대와 맞지 않는 인물로 비칠 수 있는 프란치스코의 삶을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자는 “프란치스코(프란치스코회 일원과 성 프란치스코의 수도 규

칙을 따르는 이들을 총칭하는 말)에게 행동이란 한센병 환자들을 간호하는 일이나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는 일, 환경을 돌보는 일 등 실천적인 것으로 대개 불결하거나 고된 일이 많다”며 “어떠한 실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이 모든 일은 기도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저 무모한 자선행위가 될지 모른다. 기도는 성스러운 노력과 세속적인 노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전한다. 이 출판사에서 냈던 이전의 입문서들이 그러했듯, 이 두 권의 책들도 각 인물의 저서들과 2차 저작물인 함께 읽어 볼 만한 책'을 제시함으로써 더 깊은 연구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 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날 향한 그분의 뜻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면”

美 월스트리트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 신순규 씨의 ‘신앙고백’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故 탈북증인의 생생한 북한 복음 이야기

“내가 마음을 다스리는 데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역시 신앙이었다. 서울맹학교를 다닐 때 갖게 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신앙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주었다.”

최근 자전 에세이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판미동)>을 펴낸 신순규 씨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공인재무분석사(CFA)를 취득한 ‘애널리스트(analyst·국내의 주식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분석·예측하여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다.

9세 때 시력을 잃은 후 15세 때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 홀출단신 미국 유학을 떠난 그는 의사와 경영학자, 애널리스트까지 진로를 여러 차례 변경했고, 하버드와 MIT 졸업 후 JP모건을 거쳐 세계의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 위치한 미국 내 프라이빗 बैं크 중 가장 큰 규모의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다.

책은 저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본다는 것’, ‘꿈’, ‘가족’, ‘일’, ‘나눔’ 다섯 가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있다.

첫 번째 ‘본다는 것’에서는 겉만 보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볼 수 있으며, 편견에 눈이 가려져서도 안 되고, 덜 보아야 ‘소음’에서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음을 담담한 필체로 적어 내려가고 있다.

특히, 고난과 역경을 힘겹게 헤쳐나가는 ‘입지전적 이야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저자는 이런 류(類)의 도서들이 가는 ‘쉬운 길’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다.

늘 온갖 것들을 보고 사느라 우리가 놓치고 사는 부분들을 되새겨 주고 있는 것이다.

책 발간 후 방한한 신 씨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주어진 환경과 거기에 겪는 경험의 납득이 있었기 때문에, 남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에세이를 쓰고 싶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책에서도 “모든 것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다는 말이 수없이 들어왔다”며 “심지어 내가 시력을 잃은 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될 정도”라고 했다.

책에는 다소 생략된, 인생 곳곳에 ‘신앙’이 끼친 영향에 대해선 “하나님의 인도와 시기가 제 계획이나 소망보다 더 완벽하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 정말 삶에 대한 작은 것부터 아주 큰 일까지 주님께 맡기는 것이 버릇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실명된 시기, 피아노 레슨을 강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신순규 판미동 | 228쪽

요받은 것, 유학까지 연결된 일들, 영어나 문화 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서울맹학교에서의 1년, 더 큰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와 훈련을 할 수 있었던 (미국)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4년, 영주권과 명문대학의 관련성 등등...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시기에 무엇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했던 것들이 모두 더 좋은 일로 돌변하는 현실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빠놓기 힘든 핵심적인 그것”이 아니라, 삶의 근본이자 목적이 ‘저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들도 그렇지만, 제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오늘, 이번 주, 올해, 평생)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목적을 향해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제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이라고 믿습니다”이다.

저자는 “이런 삶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적, 즉 무엇무엇이 된다거나 무슨 일을 해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사는가, 즉 삶의 방법이 나 과정 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다”고 덧붙혔다.

책에서 저자는 “쏟아지는 정보를 가려 보는 일은 나에게 아주 중요하다.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정보는 그리 제한되어 있지 않지만, 스크린에 나오는 정보를 한눈에 다 보는 사람들보다는 아무래도 정보를 흡수하는 속도가 더디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읽고 검토하는 능력을 쌓아야 했다”고 말한다.

정보도 정보지만, 수백만 달러를 움직여야 하는 과정에서 ‘불안이나 공포’는 없을까. 저자는 “고객의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임무를 우선으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액수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100

만 달러나 1억 달러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가치를 더해 주어야 하니까요”라고 말한다.

또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돈의 액수가 그저 스포츠의 점수 같은 것이 된다고도 했다. “절대 내어 주면(돈을 잃으면) 안 되고, 꼭 점수를 더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액수는 아주 크지만 우리가 직접 현찰을 만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분석에 자신을 갖기 때문에, 일상적인 일에 대한 걱정 외에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신순규 씨는 책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세권의 책을 소개한다. “사람에게서 듣기 어려운 것을 알고자 할 때, 나는 자주 책에서 답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로 다른 이들을 대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던 나는, 이와 관련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은 멀리 케로더스 목사의 <감옥생활에서 찬송생활로(Prison to praise)>, 리처드 포스터 작가의 <영적 훈련과 성장(Celebration of Discipline)>, 그리고 필립 안시 작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What's So Amazing about Grace?)>이다.

그는 한국 크리스천 젊은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신앙도서로 필립 안시의 책 ‘Philip Yancey’s Soul survivor(한국 제목 그들이 나를 살렸네)’를 권하고 있기도 하다.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쓴 이 책은, 신앙 덕분에 남다른게 살았던 13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남다른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해 줍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랬습니다”라며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저자 신순규.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박상원 편저 레츠북 | 207쪽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쪽은 통치적 권력 유지와 압박/위기, 다른 한쪽은 통일 비용 계산과 동족 사랑의 불충분 등으로 모두 통일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관망으로 통일의 뜻과 시간은 더 희미해지고 지연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편저자 박상원 목사(기독교통신교회 대표)는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해안과 방법을 찾자 지난 2008년 9월부터 서북미(시애틀)에서 소수의 후원자들과 함께 북한 선교사역을 펼쳐왔다. 그 과정에서 북한 지하성도들의 모임과 순교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 공 김경철 형제(필명 김길남, 그 당시 50세)를 직접 만나 일기문 2권과 노트 2권을 건네 받았다.

그 중 순서상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기독교적 관점에서 다시 정리해 <굽주립보다 더 큰 목마름>(두란노, 2012년 11월 출간)이란 제목으로 먼저 출간 하면서 북한 지하성도들의 순교간증들을 세상 밖으로 알리게 되었다. 이 책은 2015년 현재 약 1만 2천여 권이 판매되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 그는 자신의 삶이 불소시개로 사용된 그 첫 권이 세상에 나오기 바로 한 달 전, 중국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비명에 휩사하고 말았다.

이번에 출간된 수기는 그가 처음 작성한 일기문 형식의 수기로 그의 출생이후부터 유소년기의 성장과정을 포함, 가족사가 잘 나타나 있고 군대 제대 후, 급변한 사회현실과 사랑하는 아내와의 만남과 이별 등 인간사가 잘 묘사되어 있다.

특히, 운동실력이 남달랐던 주인공은 특전부대 출신으로 후방 교란전술, 요인 암살, 심리전 등 여러 전술들을 모두 섭렵하며 14년간 군복무를 하다 제대했다. 이때 겪었던 고강도의 훈련 경험과 기술은 향후 그가 북한 내에서의 활동이 노출되어 중국으로 탈북하기 전까지 북한 내에서 벌인 기독교적 반 공산주의 사회운동에 탁월한 리더십으로 활용되었다.

이 책이 더욱 주목되는 이유는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이미 평양에 온 초대 미국인 선교사들과 함께 평양에 교회를 세워 목회를 했고 평양 숭실학교에서 목회자를 배출하는 교육자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의 증조할아버지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 일으켰던 3.1독립운동의 한 일원으로 활동하다 순교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신실한 할아버지대와 결국은 목회자가 된 큰 아버지대로 이어졌다.

현재 박 목사는 고 김경철의 삶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보는’ 북한선교를 위한 영화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이 책의 수익금도 영화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후원문의: 425-775-7477

*홈페이지: gideonbrothers.org

이영인 기자



편저자 박상원 목사.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통신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머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헤어 칼라 전문점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 칼라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론퍼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8:00 PM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기 코너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은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발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발매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용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미디어닷컴에서 구매하신다면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미용인도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영양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기념 세일

-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치아미백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mericans of various ethnic groups gathered at the "Heal Our Land" prayer gathering that took place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on Sunday.

Southern California Americans Gather to Pray for Restoration and Revival in the Country

BY RACHAEL LEE

"We are the church! We are America! Save us! Change us!"

Such were the prayers of those who gathered to pray for America at the Anaheim Convention Center on Sunday night. The gathering, called "Heal Our Land," was primarily spearheaded by Korean church leaders of Southern California, but was led and attended by individuals of various ethnic groups, including Caucasian, African American, Latino, and Middle Eastern Christians. Organizers say that some 3,500 attended the gathering.

"America needs a radical, massive operation on one of its founding principles -- its humble faith," said Dr. John C. Kim, founder of the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JAMA).

"If we don't, we don't have a future. And if America fails, the world will fail. But Jesus never fails," Kim continued. "And our God is merciful and gracious. Let us pray and ask God, 'Pour out your grace that we would turn and

repent before you.'"

"Let there be no more division, no more pointing fingers," said director of The Call Lou Engle, one of three speakers who spoke brief messages. "Unity is the heartbeat of God -- let us bless one another of all races and of all denominations ... This is the hour in which America will experience yet another revival."

The four-hour prayer meeting which began at 4:30 PM covered various topics related to spiritual restoration in the U.S., such as personal and corporate repentance; the church; families and marriage; schools; culture; leaders in all levels of government; social issues including human trafficking, homelessness, and racism; and world missions.

Some two dozen speakers briefly preached or introduced a specific prayer topic, most of whom were Korean and about a sixth of whom were of other ethnic groups. Many prayer topics were led in Korean and translated into English, and one topic (on world missions) was led in Chinese, which was also

translated into English.

Though the various prayer topics were regarding different aspects of American society, most speakers included prayers of repentance, and petitions for revival in all of their specific areas -- repentance for turning away from God and his standards in the family, church, school, media, government, and society, and petitions for revival and restoration in each of those areas.

Racial reconciliation, terrorism attacks, and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same-sex marriage were brought up as well, and a time to pray for elected officials was set aside towards the latter half of the event.

Assemblywoman Young Kim (65th District), Mayor Steven Choi of Irvine, La Palma City Councilmember Steve Hwangbo, Mayor Scott Voigts of Lake Forest, and ABC Unified School District Board Member Soo Yoo expressed gratitude for the prayers of those gathered.

"It is through your prayers that we are here today, and we ask that

you'd continue to pray for us, that we would be wise, and that we would be in our respective positions without compromising God's standards," said Mayor Voigts.

This prayer gathering was hosted by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in America,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and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 three of the most active organization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of Southern California.

"Heal Our Land" comes after two gatherings of "A Line in the Sand," which were all-day prayer events organized not by Korean church leaders but by David Andrade and Michael Petro, who joined hands with the Korean church leaders to organize "Heal Our Land" this year.

Leaders of the National Day of Prayer (NDOP), which takes place on the first Thursday of May each year, were also featured, with a video welcome by Shirley Dobson, the chair of the NDOP Taskforce, and a prayer led by director of public relations Rev. Dion Elmore.

Missionaries' Kids Invest in Future of Younger MKs

mKommit launches scholarship project; sets fundraising goal of \$12,000

BY RACHAEL LEE

Missionaries' kids are raising funds again this year in hopes to help provide the needs of younger missionaries' kids as they prepare for college and their future careers.

This group of missionaries' kids, also known colloquially as "MKs," are a part of mKommit, a group which has been providing mentorship and scholarships since 2013 to help younger MKs with emotional and financial needs as they attend college in the U.S. Members of mKommit are now young adults working in education, medicine, and other professional fields.

Members of mKommit met while they were in college through a ministry called mKainos, which hosts yearly retreats for MK college students. These retreats provide a space in which MKs studying in the U.S. could understand their identities, and share their experiences with fellow MKs. mKommit members said that the network and support they've received during their years in college was influential to their growth as individuals in the midst of unique challenges that they faced as MKs, including cultural differenc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Having been in their shoes, we understand the journey of an MK can be overbearing with various challenges accompanied with loneliness," mKommit members said. "Nonetheless, our firm belief and trust in God's providence has gotten us through those inevitable humbling seasons, experiencing God's provisions through unexpected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those around us."

mKommit stated that through the mentorship and the scholarship funds, they want "to reach out and support ... younger MK siblings who have left their mission field and family to study in the U.S."

"Our ultimate goal is to give back what we have received as MKs, which were all the prayer and support from members of the church all around the world," the group added. "If we continue with the same heart and goal and walk every step following God's prompting, we believe that God will work mightily through us. The opportunity to share this heart and show God's love to the younger MKs is none other than now."

During the first year of the scholarship project, 15 MK students from 12 different countries were awarded scholarships. The number of awardees grew to 19 students in 2014. This year, mKommit has set a goal to raise \$12,000, and scholarship recipients will be awarded at the mKainos winter retreat this year being held from December 28 to 31 in Malibu, CA.

This year's application process for the scholarship has two parts. Applicants must submit a video testimony of their experiences living in and attending university in the U.S., and a letter written to their parents overseas "sharing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ey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fully express to them previously."

Contributions can be made at www.youcaring.com/2015mkommit, or by mail to P.O. Box 75459, Los Angeles, CA 90075. Checks should be made payable to "Global Partners" with "MK Scholarship" on the memo line. Tax deductible letters can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Love 153': Sharing God's Love through Action in Israel

BY RACHAEL LEE

As she serves people in Israel, Reverend Joyce Jung holds one philosophy dear: "Love must not only be spoken, but must also be shown in action."

Jung is the executive director of Love 153 International, a Christi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works with the Jewish Agency for Israel (JAFI) to offer various services such as sewing classes, taekwondo classes, and 'Holy Land tours' of Jerusalem to orphans, widows, and at-risk youths in Israel. She explained that Love 153 offers these services as a way to show God's love.

"Many Christians don't know the historical context of Israel, and they go there and take the cross and talk about Jesus," Jung said. "But throughout thousands of years in their history, time and time again, when they were persecuted, the cross was used and the name of Christ was used as the reason for their persecution. So when they see the cross, they think of persecution. There is this fear and negative perception of Christians because of their history."

"I felt God was telling me, don't

only speak about the love, do the love. I need someone to hold their hands and be their friend and help them with their needs," she recalled. "Because before they can say that God is love, they have to understand it, and we have to show them that love. So these programs are a very crucial first step."

Jung was connected with representatives in JAFI during her first visit to Israel in 2013, at which time they were seeking out Christian organizations to work together with to serve vulnerable communities in Israel. Some of the most vulnerable in Israel are the immigrants, Jung said, particularly those from Ethiopia and Russia. Ethiopian Jews are among the poorest people groups in the nation, and these immigrant Jews who finally arrive in Israel with high expectations and hopes find themselves faced with obstacles including difficulties in assimilating and searching for jobs.

As such, Love 153 started sewing classes in 2014, and today, the organization hosts sewing classes in six different locations in Israel, including the Ethiopian Jewish Center, a high school for delinquent youth, an occupational training



Graduates of Love 153's sewing class celebrated with a ceremony. Joyce Jung, the executive director of Love 153, joins with them for a photo standing third from the right.

school, an Arab widow center in Nazareth, and Jerusalem Hill center, a refuge for severely abused children. Learning how to sew allows students to start their own alteration businesses, Jung said.

Other than sewing classes, Love 153 also offers taekwondo classes for children and youth in three locations, some of which were already offering taekwondo classes but did not have proper uniforms due to a shortage in finances. Love 153 was able to provide new uniforms as well as classes taught by an 8-degree black belt taekwondo coach from South Korea.

Love 153 staff also make visits to Holocaust survivors, and offer "Holy Land tours" to Jerusalem for 50 shekels (approximately 12 US dollars) for those who have wanted to visit the city but could not afford the trip.

Such services have opened the minds of many of those in the community, who previously may have had negative perceptions about Christians, Jung said. She talked of a rabbi who invited her to his synagogue, and introduced her to the congregation.

"He introduced me by saying,

"This is Joyce, and she's helping us. And by the way, she's Christian," Jung recalled. "He talked about the services that our organization has been offering. And afterwards, the woman who was sitting next to me thanked me right away, and even men thanked me afterwards when we made eye contact. They are thanking me, a Christian, for being there."

"Every day, people come up to me and say they didn't know that much about Christians, and now they're thinking more openly about them," she added. "This huge wall is breaking down day by day."

Jung said she hopes to continue expanding Love 153's programs, and encouraged local churches who have been interested in visiting Israel to visit Love 153's center and participate in its programs.

"It's a miracle, what God is doing here," Jung said. "I highly encourage and invite churches to come and visit Israel, and interact with the people and understand who they are. And through their lives and presence, they can show God's love."

For more information, visit www.love153.org.



Love 153 offers sewing classes in six different locations in Israel. Students are able to start alteration businesses with the skills they learn through the classes.

당신의 생각을 뒤집는 충격 다큐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I am No Longer Gay

동성애는 과연 타고 나는 것인가?
과연 사랑일까?
동성애를 버리고 돌아온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
동성애를 탈출한 Ex-Gay 들을 통해
그 감추어진 동성애의 실체와
그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공개 합니다.



미주 순회 시사회 일정 (영어자막제공)

12월 8일 (화) 7:30PM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12월 10일 (목) 8:00PM
선한목자교회 (고태형 목사)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el: 909-591-6500

12월 11일 (금) 7:50PM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목사)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12월 13일 (주일) 10:00AM
UBM교회 (앤드류김 목사)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상영 문의: 노엘 홍 전도사 714-501-1337 (UBM 교회)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만남

진행: **김광진 감독** '나는 더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연출
염안섭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환자 치료전문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홍보대사